

병원에서 촬영하는 환자는 29.2%로 많았다. 그 중에서도 검사법을 잘 몰라서 불안하다는 환자는 17.6%나 있었고, 검사를 하는데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환자도 9.2%나 있었다. 여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⑦항목의 촬영을 하는데 따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환자도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

<4> 방사선검사복의 착용에 대한 현황

동아대학교병원

오 문 영

방사선검사의 거의 대부분은 옷을 벗거나 까운을 입고 촬영을 해야하므로 때로는 환자에게 불쾌감과 불신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사는 촬영하는 부위와 옷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하여, 검사가 정확하게 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인격존중은 물론 환자의 사적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까운이나 타올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내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검사복 준비 및 그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을 조사하고, 검사복의 형태, 재질, 종류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1. “검사복 준비는 항상하고 있다”는 병원이 92%로 가장 많았고, 그 외는 때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복 준비는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환자에 대한 반응으로 검사복이나 금속류가 없는 속옷을 입히는 경우(32%)와 원칙적으로 탈의시키나 환자에 따라 방사선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32%)가 꼭 검사복을 입히는 것(20%)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검사복 이용은 환자 1인에 한벌씩 사용하는 곳은 전혀 없었고, 한벌로 여러번 사용한다는 대답이 96%로 가장 높아 청결하고 위생적인 검사복 사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4. 검사복을 종류 또는 크기별로 준비하기 보다는 “한 가지로 모든 환자가 사용한다”는 병원이 72% 대부분이었고, 남·여 구별없이 사용하는 병원이 많아(88%) 검사복이 검사복을 종류에 따라서나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 요구되었다.
5. 환자가 탈의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검사내용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는 대답이 88%로 가장 많아, 환자와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6. 간접촬영의 경우도 검사복을 입고 촬영하는 병원이 84%로 대부분이었으나 특별히 탈의시키지 않고 한다는 병원도 있어 검사복의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간접촬영에 있어서는 검사복 또는 속옷 1매만 입고 하는 병원(52%)이 꼭 검사를 입고 하는 병원(40%)보다 많았다.
8. 검사복의 종류는 옷옷식이 52%로 가장 많았고, Apron식(28%), T셔츠식(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복의 재질 또는 혼방(Polyestel+면)의 사용도 몇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은 면(92%)을 사용하고 있었다.
9. 검사복의 크기는 상반신과 전신용이 같은 비율로 많았고, 색상으로는 푸른색과 흰색, 분홍색, 기타로 조사되었다.
10. 기타 흉부 이외의 검사도 검사복을 준비하는 경우는 88%로 대부분이었고, 검사복의 종류는 2종류 또는 3, 4종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검사복 준비를 하지 않은 병원은 전혀 없었다. 모든 병원에서 검사복을 이용하고 있으나 검사복은 한벌로 몇번이고 사용하고 크기는 남·여 구별이 없이 사용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복을 준비함은 물론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용이 시급하였다.

<5> X-선 촬영시 탈의(脫衣)에 관한 환자의 반응

신구전문대학

김 성 수

X-선 촬영시 방사선사가 환자를 소중히 대하는 것은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사선사라면 환자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는 고통과 불안감이 항상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온화한 마음씨로 친절하게 성의를 가지고 환자를 응대하는 깊은 [온정(溫情, warmth)의 정신]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의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환자를 대하는 온정의 정신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 219명, 외래환자 194명(남자 234명, 여자 176명)을 대상으로 하여 13개 항목에 대하여 X-선 촬영시 환자가 느끼는 의식을 조사하였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1항>의 “X-선 촬영시 왜 탈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67% 환자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2항>의 “촬영시 탈의하는 이유를 방사선사로부터 설명들었습니까?”하는 질문에 설명이 없었다는 대답이 65%로 나타났다. <5항>의 “탈의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는 탈의가 환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62%, <7항>의 “탈의 후 다른 가운데로 갈아 입었을 때의 느낌”은 52%의 환자가 그리 청결치 못하다고 하였으며, <12항>의 촬영시 방사선사에 대한 느낌이 좋았다고 답한 환자는 10%, 보통이었다는 70%로 나타났고, 좋지 않다는 생각에 대한 결과는 33%, 무응답자가 3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의 결과로 보아, 우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고 친절 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흉부 X선검사에 착용하는 검사복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이 선 숙

최근 의료에서 patient care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각 병원마다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와 포스터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X선 촬영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탈의를